

2017 선교사-목회자 돌봄

주요 프로그램 및 강사 소개

디브리핑 Debriefing

개인 피어 디브리핑(Peer Debriefing)은 나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시리즈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나의 사역, 나의 삶, 더 나아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역을 돌아보고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사역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멤버케어 Member Care

선교사의 선발부터 은퇴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멤버케어

“멤버케어는 선교사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선교단체들, 교회들, 선교사를 돕는 기관들이 하는 지속적인 투자이다.

멤버케어의 대상은 국내외 선교사들, 자녀들, 가족들을 포함한 선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며

허입에서 은퇴까지 선교사의 전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켈리 오도넬, 1997)

MAP Ministry Action Plan

선교사·목회자의 사역 계획을 세워보고 도표화하며, 구체화하는 시간입니다. 강의를 통하여 구상해보기도 하고, 일상의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기도 합니다. MAP은 다음 사역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Source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MAP을 통하여 다음 사역을 설계하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SPARE - O

선교사·목회자의 사역을 5가지의 영역에서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사역을 하나님안에서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기 정체성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소명의 기반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 영적 전쟁

하나님의 치유와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신학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미니 콘서트 씬 / 샘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입니다.

주요 강사 소개

최헌 목사 (Rev. Hunn Choi)

14세 때 미국으로 건너 온 PK 1.5세 목사로, 엔지니어(우주공학)로 일하다가 23세에 거듭나고 소명받은 후 애즈베리(M.Div.), 프린스턴(Th.M.), LSTC(Ph.D.과정수료)에서 수학했다. 현재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3개 회중이 있는 올네이션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디아스포라교회 목회자이다. 애즈베리에서 선교학박사과정 (Intercultural Studies)을 하면서 2011년부터 올네이션스선교센터 대표로 섬기고 있다.

이(최)미생 교수 (Dr. Meesaeng Lee Choi, Ph.D.)

이화여대와 서울신대원(M.Div.) 졸업 후 명지대학교와 서울신대에서 Assistant Chaplain으로 제자훈련과 채플 사역을 하다가 1989년 도미, 애즈베리(Th.M.)와 드류(Ph.D.)에서 학위를 마치면서 2002년 부터 교회사와 역사신학교수로 가르치고 있다. 미국으로 부름받은 선교사로 2009년 죽음에 가까운 병에서 회복되면서 선교센터의 비전을 받게 된 그녀는 2011년부터 올네이션스선교센터 대표로 섬기고 있다.

장순호 선교사 (Rev. Soonho Chang)

PK 반항아로 음악을 전공한 그는 소명을 받고 목사로 섬기다가 방글라데시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1982년 방글라데시로 간 후 벵갈문학과 선교학을 수학하고 교회개척과 NGO((사)방글라데시 개발협회), 학교사역등을 하면서 수없는 위험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방글라데시를 향한 사랑은 깊어만 간다. 한국기독교선교대상과 언더우드선교상을 수상받은바 있다.

로라 가드너 박사와 리차드 가드너 (Dr. Laura Mae 'Larrie' & Mr. Richard "Dick" Allen Gardner)

로라와 딕 가드너 부부는 50년 이상을 위클리프/SIL의 선교사로 멕시코에서 20년간 성경 번역을 하고 국제 위클리프/SIL의 멤버케어 부서를 창설하여 현재까지 섬기고 있다. 로라와 리처드 가드너 부부는 멤버케어에 대해 250편 이상의 논문과 서적에 글을 써왔으며, 세계 60여개 나라를 다니면서 강사로 또한 선교단체들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멤버케어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로널드와 바니 코테스키 박사 (Dr. & Mrs. Ronald & Bonnie Koteskey)

원래 쥐를 연구한 심리학 박사로서 애즈베리대학교의 교수로 탈진을 경험한 후 선교사케어를 위한 심리학을 다시 수학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와 함께 선교사와 MK 멤버케어 사역을 30년여 간 해오면서 평신도 멤버케어 컨설턴트로 섬기는 그는 www.missionarycare.com을 통해 수많은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필요할 때는 선교지로 가서 멤버케어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로니 프루잇 교수 (Prof. Rhonda Pruitt, Ph.D.)

선교사 출신으로 콜롬비아국제대학교 선교사케어 교수인 그녀는 최근에 아시아 선교사들의 멤버케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애즈베리에서 선교학박사과정을 마쳐가고 있는 그녀는 특히 싱글여성선교사 멤버케어 프로그램을 많이 해온 아름다운 멤버케어 전문가이다.

스티브 시먼즈 박사 (Rev. Steve Seamands, Ph.D.)

인도 선교사 자녀로 자라면서 어려서 겪었던 "거절과 버림당함"의 치유를 경험한 그는 베스트셀러 <상한감정의 치유>를 쓰신 데이빗 시먼즈의 아들로써 <마음의 상처를 십자가로 가져가라 Wounds that Heals>를 썼다. 목사이면서 애즈메리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인 그는 "성령론"과 "영적전쟁" 강의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제자들을 치유사역으로 섬기고 키워왔다.